

해양수산동향

Vol. 1234

2006. 12. 18

책임연구원

박광서

TEL

2105-4928

E-mail

kspark@kmi.re.kr

원화 강세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동향과 전망

01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액은 약 9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8.1%가 감소했고, 수입액은 약 24억 9천만 달러로 15.5%가 증가했음. 결과적으로 11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의 적자폭을 보이고 있음

02 한편 올해 우리나라의 원화는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음. 원-달러 환율은 2006년이 되자 곧바로 1,000원대가 무너진 데 이어 12월 들어서는 9년 2개월여 만에 91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음. 원-엔 환율도 하락을 지속하여 지난 11월 6일 800원대가 무너졌고 12월 초에 잠시 800원대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12월 중순부터 780원대를 기록하고 있음

03 수산물의 수출입은 환율 이외에도 위생문제, 소비문화, 관세, 시장여건,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그러나 올해는 환율이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원화 강세로 인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과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반대로 수입품의 수입단가가 낮아져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04 달러화와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수산물 수출입 역시 상당기간 환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임. 따라서 환보험료 인하, 환보험 가입 확대, 환위험 지원 강화 등 환율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05 궁극적으로는 환율에 탄력성이 낮은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함.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각화, 다양한 제품 개발과 홍보가 뒤따라야 함. 한편 생산조정, 품질규제, 원가절감 등 어민들의 자발적인 자생노력도 매우 중요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11월까지 수출액, 작년 동기간에 비해 8.1% 감소

올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올해 11월까지 수출량은 약 33만 6천 톤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8.8% 감소하였고, 수출액도 약 9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8.1%나 감소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9.9%나 감소하였다. 이는 활넙치, 냉동굴, 냉동 및 염장미역, 봉장어 피레트, 피조개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나 뉴질랜드, 캐나다로의 수출액도 2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중국은 냉동오징어, 염장미역, 조미김, 뉴질랜드는 냉동오징어, 냉동민대구, 캐나다는 냉동오징어의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11월까지 수입액, 작년 동기간에 비해 15.5% 증가

반면에 수입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11월까지 수입량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9.5% 증가한 125만 2천 톤이었으며, 수입액도 작년 동기간에 비해 15.5% 증가한 약 24억 9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수입액이 9.8%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미, 농어, 노래미, 뱀장어 등의 활어와 꽃게, 새우살, 아귀, 복어, 조기, 고등어 등의 냉동 수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일본, 베트남에서의 수입액도 20%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데, 러시아에서는 게 종류와 냉동 상태의 명태, 명란, 어란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일본에서는 활참돔과 냉동고등어, 신선 또는 냉장상태의 고등어, 갈치, 명태 등이, 베트남에서는 냉동 상태의 갑오징어, 새우살, 낙지, 쭈꾸미와 건조멸치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고치 기록

결과적으로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의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1년에 흑자 기조에서 적자로 돌아선 뒤 적자폭이 매년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다.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국내에서 수산물 소비가 늘었기 때문인데, 올해는 특히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11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38.7% 증가한 15억 1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달러화와 엔화에 대한 원화 강세 지속

한편 올해 우리나라의 원화는 달러화나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22.50원, 원-엔 환율은 100엔당 784.47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2005년 연간 평균환율이 1,024.31원으로 2004년에 비해 4.0% 하락하였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원대가 곧바로 무너졌으며, 12월 들어서는 920원대마저 위협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2월 8일에는 918.00원을 기록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910원대로 떨어진 것은 1997년 10월 22일(913.50원) 이후 9년 2개월여 만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대내적으로는 국내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이 지속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과 쌍둥이적자(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수준이나 속도가 올해 초에 비해 완만해진 편이지만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원-엔 환율의 하락은 일본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원-엔 환율은 작년 11월 1일 894.15원으로 900원대가 무너진 이후 만 1년 후인 올해 11월 6일 794.86원으로 800원대마저 무너졌다. 특히 올해 11월 평균환율은 798.03원으로 작년 연간 평균환율에 비해 14.3%나 하락하였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 4/4분기에 일시적인 조정국면이 있었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엔화는 달러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2월 현재 일본의 금리가 0.25%에 불과한 데 비해 미국은 5.25%, 유럽은 3.50%¹⁾로 금리격차가 여전하고 미국이 엔화 약세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은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수산물의 수출입은 환율 이외에도 위생문제, 소비문화, 관세, 시장여건,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작년 10월 말라카이트그린(MG) 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위생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는 환율이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과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반대로 수입품의 수입단가가 낮아져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즉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유럽중앙은행(ECB)은 2006년 12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당초 3.25%에서 0.25% 인상한 3.50%로 확정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5.25%)와의 격차가 좁혀져 글로벌 달러 약세화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올해 2월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한계에 도달하였거나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체가 전체의 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업체도 사정이 이와 다르지 않다. 수산물 수출업체에서는 대일 수출 마지노선 원-엔 환율을 850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월 15일 현재 850원보다도 7.7%나 하락한 784.47원을 보이고 있다.

수출업체들은 환율이 하락하여 당초의 수출가격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지만 수출가격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가격을 올릴 경우 중국 등 수산물 수출국가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수출업체들은 단지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감행하고 있거나, 일부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인해 수출을 중단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입업체는 수입단가가 낮아지고 이에 따른 관세 인하 등이 추가되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내수경기 부진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수출 부진으로 내수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수입업체들의 채산성도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수산물은 기호식품의 성격이 강해서 내수경기가 좋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수입업체 입장에서도 환율 하락이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향후 수산물 수출입 전망

원-달러, 원-엔 환율은 수출업체들의 희망과는 달리 당분간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중단한데다가 미국이 안고 있는 쌍둥이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달러 약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를 비롯한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중단으로 올해 말경 원-달러 환율이 92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금리는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하고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제로금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일본의 경기 호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엔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엔저 정책이 지속되는 한 환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출입도 상당기간 환율 하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무역수지 적자폭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수출업체들은 수출가격 인상이 어려워 구입가격을 낮춤으로써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생산자의 수취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수산업의 생산기반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환율에 탄력성이 낮은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 필요

환율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원유나 어분 등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까지 수지가 악화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환율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정책당국은 환보험료와 선물환 수수료 인하, 환보험 가입 확대, 환위험 컨설팅, 해외 바이어 알선 등을 통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수출업체는 수출결제대금을 다각화하거나 서로 다른 금리 또는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상호 교환하는 스와프 거래 등을 통해 환율 변동의 위험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환율에 탄력성이 낮은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측면에서는 위해물질중점관리제도(HACCP)나 수산물 이력추적제도(T/S) 등 위생관리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는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고 소비국 국민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생산조정, 품질규제, 브랜드화, 원가절감 등 어민들의 자발적인 자생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환율 하락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품질 경쟁력을 높일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1>

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단위 : M/T, US\$1,000\$, %)

구 분	2005년 11월까지		2006년 11월까지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출(A)	368,505	1,069,397	336,100	982,304	-8.8	-8.1
수입(B)	1,143,735	2,158,327	1,252,188	2,492,324	9.5	15.5
증감(A-B)	-775,230	-1,088,930	-916,088	-1,510,020	18.2	38.7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정보포털시스템」

<표-2>

달러화와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통계

(단위 : 원, %)

구 분	원/미국달러(기준환율)		원/일본엔(100엔)	
	평균환율	증감	평균환율	증감
2001년	1,290.83	14.2	1,062.41	1.3
2002년	1,251.24	-3.1	999.57	-5.9
2003년	1,191.89	-4.7	1,029.76	3.0
2004년	1,144.67	-4.0	1,058.76	2.8
2005년	1,024.31	-10.5	930.66	-12.1
2006년 12월 15일	922.50	-9.9	783.47	-15.8

주 : 평균환율 기준임. 2006년 12월 15일 증감은 2005년 대비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DB(ECOS)」

<표-3>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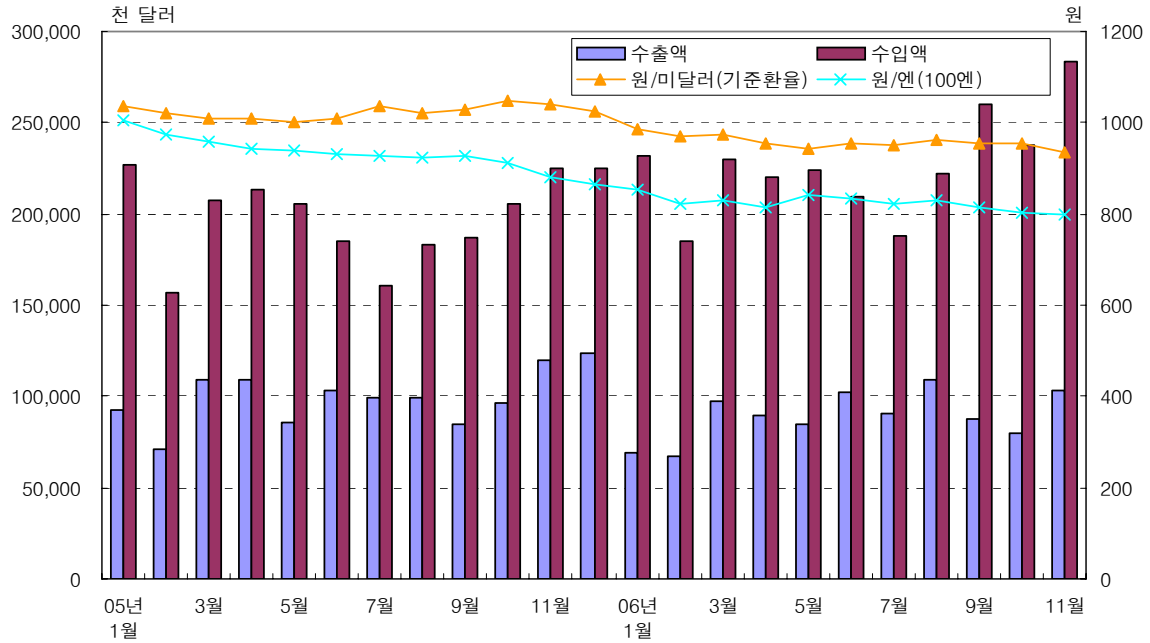
기관명	6개월 후	1년 후
Morgan Stanley	950	920
J.P. Morgan	990	950
Citi Group	938	900
Lehman Brothers	950	925
각 기관 평균	957	924

주 : 전망시점은 2006년 1월 25일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팀(2006.2.3), 「최근 환율급락의 영향과 정책방향」

<그림-1>

원-달러, 원-엔 환율과 수출입액 변화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정보포털시스템」 및 한국은행, 「통계DB(ECOS)」